

도시의 정치경제학 랜덤하게 (내 입맛대로 골라) 읽기, 그리고 멋대로 내 생각 덧붙이기

사회권력의 원천으로서의 화폐, 시간, 공간,

사회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화폐, 시간, 공간의 억압적 성질은 수 많은 격변과 반란운동에 불을 붙였다.

다양한 지배양식으로부터 공간을 해방시키려는 요구,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려는 요구, 지독히 천박한 화폐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자하는 요구 이런 것들은 광범위한 폭과 범위의 사회운동을 일으킨다.

상업은 본질상 악마적이다. 그것은 심지어 정직까지도 금전적 투기(투자)가 되는 가장 나쁜 형태의 이기주의다.

존경받을 만한 세가지의 존재가 있다. 성직자, 전사, 시인.

(아는것, 죽이는것, 창조하는것.)

사물의 화폐가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생활방식은 독특한 심미적 매력을 갖는다.

1840년대 파리 사람들은 상가를 산책할 때 거북이를 데려가는게 유행이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시간관념을 표현하려는 것이었다.(나는 이렇게 여유롭다...보편적이고 추상적이며, 공적인 시간의 지배로부터 나는 해방되었다. 혹은 해방된것처럼 살고자한다. 나는 시간의 지배를 거스르겠다!)

자유시간을 통제하고 조직화된 공적시간의 엄격한 원칙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해방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태로움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시 거리를 거닐 수 있는 자유는 꼭 화폐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지배 및 통제양식, 사유재산권, 등을 통하여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종종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저항운동을 불러 일으킨다.

다양한 지배형태로부터 공간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미지로 그것을 재구성하고 또는 특권을 갖는 공간(예컨대 청계천 유적 같은 것)을 외부적 압력이나 내부적 해체로부터 보호하자는 요구는 많은 도시투쟁과 공동체투쟁의 중심에 놓인다.

추상적이고 보편화된 공간(그 어떤 공간의 독특한 의미, 경험, 역사등이 대패로 밀리듯이 밀려 균등하게된 추상화된, 그리하여 상품으로 팔도록 가공된 지적도, 지도 상의 공간)이 요구하는 동질성에 대한 도전의 모델은?

‘진정한 공동체’와 ‘공간 감각’ (추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인간 만의 삶이 아니라 동식물의 삶까지 포함하여-과 역사를 느끼는 공간이라고 나는 이 무책임한 번역을 이해한다)에 대한 추구는 화폐공동체와 화폐의 지배하에 공간의 파멸이 강력하게 느껴짐에 따라 더욱 격렬해져 갔다.

이 추구의 부분적인 열매는?

화폐공동체에 절망하여 종교로 도피하는 대안들은 많이 있어왔다. 파시즘도 마찬가지로 화폐공동체를 대체하는 다른공동체를 규정하고 절대공간(토지, 조국)을 찬양하며 완전히 다른 역사적 시간관념(신화에서 나온 행동이 큰 중요성을 갖는다)에 호소하며 화폐속에서 형성되는 것보다더 높은 질서와 가치를 찬양한다. 화폐공동체에 내포된 합리성(도구적 합리성)에 대해 폭력적인 반대를 표현 하였다. (바그너가 나치즘을 찬양한 것이 혹 예술가들의 본성인 화폐공동체(에 내포된 도구적 합리성)에 대한 혐오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아~~ 그러나 화폐권력의 ‘해체효과’는 영원하다. 종교조직은 화폐축적에 얽매여 메시아를 타락시키고 (한국의 개신교를 보라!) 고상한 목적을 갖고 권력(대권 도전권)을 잡았으나 그들의 계획을 수행할만한 돈이 부족함을 깨달아 검은 돈을 받고만 노무현 캠프..

모든 형태의 진보적 운동은 보편적 사회권력의 원천인 화폐의 ‘반식’위에 넘어질 때 패배하게 된다!!!!

화폐는 모든 악의 뿌리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선한일을 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나타난다. 선한 모든 것은 사악한 것에서 나왔다!!!여기서 우리는 능력과 무능력의 상보 관계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무능력자는 능력자를 저주하지 않는다. 능력자는 무능력자를 그들만의 울타리 밖으로 내치지않는다.

(인간은 탄생과 죽음을 자신의 의사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처음과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의존 상태를 경험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권리이고, 타인을 돌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헌신이 아니라 보상 받는 노동이라는 것, ‘개호보험’이 성취한 것은 그런 사고 방식의 전환입니다. -- 치즈꼬의 편지..당대비평 25호)

기부금 문화 활성화 되려면 검은돈이 돌 수 없도록 경제정의가 실현되어야하고 경제 정의가 실현되려면 정치가 맑아져야하겠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서 기부금을 내는게 무슨 자선행위가 아니라 ‘보상받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어야겠고 그러기위한 법의 뒷받침이 있어야겠고, 그런 법이 없다면 마련하도록 시민들이 노력해야겠고 시민들 노력하기 위해선 시민단체가 필요하고... 미술인 회의 같은 단체도 그래서 필요하고...

화폐는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는데 익숙하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배는 화폐에대한 지배로 쉽게 변화될 수 있다.(당연한 얘기)

공간지배는 어떤 권력투쟁에서도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공간을 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형성시키는 전문적이고 지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기술자, 건축가, 도시계획가 등-은 권력을 스스로 획득하여 그들의 전문화된 지식을 금전적 이윤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은 언젠가는 헛된 것이 되겠지만 교육이 장기적으로 화폐권력의 증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시간(그들 자신의 혹은 그들 자녀들의 시간)을 사용한다.

남자 임금노동자들은 가정에 돈을 가져다 줌으로써 그들에게 배우자와 아이들의 시간을 지배할 권리를 갖게된다고 가정하지만 가정에서 여성의 노동시간 역시 다른 사람의 시간을 자

유롭게 해주어 시장에서 금전적 이익을 확보하도록 해주는 가족내의 주요한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가족생활 내의 화폐지배와 시간지배 사이의 관계가 성별 갈등의 주요한 지대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부르주아 계급내의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부에 의해 주어진 ‘자유시간’을 직접적이고 사치스런 자기탐닉(노동자들이 거기에 빠지면 곱절로 부도덕하게 보여지는 행위) 속에서 조금씩 허비해 가지만 , 거기에는 또한 과학적, 지식, 예술적 문화적 연구에 자유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있다.영구나 문화적 생산시간(다른 사람의 시간을 포함해서)에 대한 권력은 사회적 재생산에 대해 부자나 국가와 함께 존재하는 주요한 권력이다.

많은 예술가들과 학자들은 그들의 시간에 대한 화폐권력의 영향력에 대항하여 반기를 들려고 노력해 왔다. (‘배부른 백수의 배두드리는 소리’ ...)

자본주의는 오직 공간을 점령하고 , 공간을 창조함으로써만 생존해왔다.

화폐 공동체가 세계시장 형성을 의미하는 반면 자본 공동체는 가속화되는 비율로 자본 축적을 지리적으로 심화 확장시키는 것을 요구한다.

화폐는 자유시간을 획득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 오직 방랑자나, 부랑자들만이 그런걸 무시하며 살 수 있다.(예술가는 이들을 흉내낸다)